

## 아카누마 늪(赤沼)

아카누마 늪은 1888년에 반다이산이 분화했을 때 일어난 사면 붕괴로 인해 강이 막혀 형성된 약 30개의 다채로운 색을 띠는 얇은 늪과 습지로 구성된 고시키누마 호소군 중 하나입니다.

반다이산 북쪽 경사면에는 산성이면서 철분이 풍부한 화구호인 아카누마 늪(銅沼)이 있으며, 그곳에서 아카누마 늪(赤沼)으로 지하수가 흘러 들어갑니다. 이 늪의 물은 평소 살짝 붉은빛을 띠는 초록색으로 보이는데, 늪에 서식하고 있는 갈대나 다른 수생식물의 뿌리가 붉은 녹으로 빨갱게 물든다고 해서 ‘아카누마 늪(赤沼)’이라 불리고 있습니다.